

논단



통일에 따른 북한내 산업 입지 개발 추진 방안

박영철 /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주요 노동 규정과 노무 관리 전략

선한승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통일에 따른 북한내 산업 입지 개발 추진 방안

박영철 /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은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위주의 산업 정책과 핵심 산업을 내륙의 오지에 입지하는 등 효율성을 간과한 잘못된 산업 입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도로, 항만, 전력 등 산업 입지와 관련된 기반 시설도 절대적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 입지 개발 사업인 나진·선봉내 유현공단 및 평양 인근의 남포공단 등도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취약점은 북한 경제의 회복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통일후 한반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내 산업 입지 개발 방안은 통일 한국의 산업 입지의 측면에서 구상한다. 통일이 산업 입지에 주는 영향은 산업 입지의 잠재력 확대, 산업 구조의 조정, 기존 산업 입지 패턴의 변화, 지역별 산업 입지 여건의 변화, 대륙 진출로 주변 지역의 산업 입지 증대, 내수 지향형 산업 입지 비중의 증대 등이다. 그리고 산업 입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 구조의 효율적인 조정, ② 한반도의 공간적인 균형 개발의 도모, ③ 통일 국토의 정주체계와 교통망의 반영, ④ 통일의 과정별·단계별 산업 입지 전략의 추진, ⑤ 남북한 기존 산업 입지 잠재력의 최대한 활용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 전략은 제한적 교류, 개방적 교류, 진보적 교류 등 단계별로 수립하되, 실제적으로 통일은 전면적 교류 단계로 직접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모든 경우에 대비한다. 또한 분명한 기준이 없을 경우 북한 산업 입지는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계획 입지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반 시설의 연계가 없는 산업 입지 개발은 의미가 없는 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한편,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서해안산업축(목포-신의주), 동해안산업축(부산-포항-함흥-청진), 남해안산업축(부산-광양-목포), 한-만국경축(신의주-청진) 등 5개 산업 개발축을 구축토록 한다.

머리말

배경

단 당시 한반도의 공업 시설은 대부분 북한에 편재되어 있었다. 풍부한 지하자원도 있어 북한의 공업화는 순조롭

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70년까지 북한의 경제 수준은 남한을 능가했던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위주의 산업 정책과 핵심 산업을 내륙의 오지에 입지하는 등 효율성을

간과한 잘못된 산업 입지 정책을 시행한 결과, 북한 경제는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이와 함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도 투자의 부족, 시설 유지 관리의 미비 등으로 절대적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외국 자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나진·선봉의 경우에도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외국 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북한 경제의 회복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통일후 한반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주요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일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로는 북한 지역의 실업 대책,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에 대한 대책, 북한의 산업 시설 복구,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통화·재정·사회보장제도의 통합, 통일 비용의 조달과 거시경제의 안정, 토지·주택·기업 등에 대한 재산권의 설정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이 산업 입지에 주는 영향으로는 산업 입지의 잠재력 확대, 지역별 산업 입지 여건의 변화, 기존 산업 입지 패턴의 변화, 대륙 진출로 주변 지역의 산업 입지 수요 증대, 내수 지향성 산업 입지 비중의 상대적 증대, 한반도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통일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지만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일정한 교류후 급격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신정부의

출범후 이른바 '햇볕론'과 함께 남북 교류가 다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편으로 통일에 따른 정책 과제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의 산업 입지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북 투자 사업 가운데 산업 입지 관련 사업을 살펴본 다음, 통일이 산업 입지에 주는 영향과 이에 따른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통일 전후 한반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산업 입지 부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에는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 정보화, 기술 발전 등 여건의 변화도 고려하도록 한다.

북한의 산업 입지 현황과 문제점

북한의 산업 입지 현황

○ 북한의 산업 입지 정책

북한의 산업 입지 실태는 다음의 네 가지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 분산적 입지이다. 북한이 공업을 배치함에 있어서 고려한 원칙은 무엇보다도 식민지적 종속성의 극복이다. 즉,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원료를 일본으로 수송이 용이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을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공업은 대부분 원료 생산지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식민적 파행성을 바로잡기 위해 북한은 산업 배치에 있어 원료 산지와 근접시킴과 아울러 생산지와 소비지를 근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인구의 과밀·과소에 구애됨이 없이 북한은 농촌과 도시의 구별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군 단위마다 공업을 입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마디로, 북한은 해안 공업은 그대로 두되, 새로운 공업은 해안 지역을 억제하고 지방 분산을 추진하였다.

둘째, 내륙 지향적 입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지방 공업은 전국에 분산되었지만 중공업의 경우는 상이하였다. 북한의 중공업은 생산 효율의 극대화와 국방 상의 고려가 우선되었다. 특히, 군장비 생산과 관계된 주요 기계 공업은 내륙에 입지하였다. 북한이 기존의 관북해안지대를 피하고 입지 여건이 불량한 북부 내륙 지방(양강도, 자강도)에 기계 공업을 배치한 것이 좋은 예이다.

셋째, 국가 공업의 배치 정책이다. 북한에는 이른바 국가 공업이라고 불리는 중앙정부의 공단이 모두 8 개 지구에 지정되어 있다. 서해안의 평양공업지구, 청천강공업지구, 신의주공업지구, 동해안의 원산공업지구, 함흥공업지구, 김책공업지구, 청진공업지구, 내륙 북부 지방의 강계공업지구 등 8 개이다. 북한은 6·25 이후 공업을 복구할 때 파괴된 공장을 당초의 원 위치에다 재건하지 않고 이른바 안전한 지대에다 신설 또는 재건하였다. 특히, 한국동란 이후 내륙 북부인 강계공

업지구를 개발한 것은 경제적 이유보다 군사적 목적으로 안전지대 배치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넷째, 지방 공업 배치 정책이다. 북한의 국가 공업이 공단 형태로 집중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 공업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 규모의 공장들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공업처럼 '단지화'의 개념을 띠지 않고 지방마다 해당 지역의 원료를 중심으로 소비재 생산을 하고 있다. 북한의 지방 공업은 이처럼 소비재의 자급 자족을 위해 각 군 단위마다 일정 규모씩 계획적으로 입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47 개 군 내에 각기 1 개씩 읍을 두고 그곳에 지방 공업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시·군 단위의 지방 공업을 20 개 단위로 다시 묶어 하나의 종합공장체제로 만들어 일용 생산품을 생산하는 경영체제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국토 공간을 산업 입지 측면에서 크게 분류하면 서해안공업벨트, 동해안공업벨트, 그리고 내륙공업벨트 등 3 개 벨트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해안공업벨트는 중국을 중심으로 수입 물자 의존형 공업인 데 반하여, 동해안공업벨트는 북한 원료 의존형 공업인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내륙형공업벨트는 군수 산업으로서 故김일성이 중점 육성한 신공업 지역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토 개발은 3 개 공업권(경제권)으로

〈표 1〉 북한 산업 입지 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 방향	주요 내용
지방 분산적 입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식민지적 종속성 극복 · 원료 산지와 근접시킴 · 생산지와 소비지를 근접시킴 · 군단위마다 지방 공업 배치 · 전국에 균형 배치
내륙 지향적 입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중공업은 생산 효율의 극대화보다 국방상 고려가 우선됨 · 내륙 깊숙한 곳에 중공업 입지 · 입지 여건이 불량한 북부 내륙 지방(양강도, 자강도)에 기계 공업 배치 · 중공업은 특정 지역 내에 관련 산업과 밀접 배치 · 대규모 군사 장비 생산 기지의 콤비나트 형성
국가 공업의 배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공업이라 불리는 중앙정부의 공단이 모두 8개 지구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 평양공업지구, 청천강공업지구, 신의주공업지구 - 동해안: 원산공업지구, 함흥공업지구, 김책공업지구, 청진공업지구 - 내륙 지방: 강계공업지구 · 내륙 북부 지역에서의 공단 배치는 경제적 이유보다 군사적 목적으로 안전 배치에 비중을 부여 · 군수 관련 공업의 안전지대 배치 · 해안선과 휴전선 부근의 중공업 배치 억제
지방 공업 배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공업: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 규모의 공장을 의미함 · 자급자족적 경영 원칙에 입각한 전국 분산 배치 · 단지화의 개념을 띠지 않고 지방마다 지역 원료를 중심으로 소비재 생산(일종의 개별 입지) · 각 군마다 일정 규모씩 계획적 입지 정책 추진 · 생산지의 원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발 · 지방 거점 형성: 국가 기업 1개, 지방 기업 10개, 전문 대학 1~2개 등으로 구성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기반 시설 현황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정책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을 효율 창출하는 생산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생산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투자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 활동의 요소로서 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제도적 특징은 철도, 도로 및 통신이 군에서 직접 관리 또는 연류되어 있어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용 부문에 우선 배정 정책 또한 여타 부문으로의 제약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북한의 주요 공업 지구 현황

공업 지구	중심 도시	특성	주요 업종	주요 공장	입지 조건	
					자원	교통·항만
평양 공업지구	평양 남포 사리원 송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최대의 공업 지구 중공업·경공업 수자원·전력 풍부 국제 항만(남포항) 	기계, 방직, 제철·철강, 가전 제품, 통신 장비	평양종합방직, 강산제철, 대한중기, 남포제련소, 천리마제강, 금성트랙터, 대안중기	평양무연탄 승호석회석 은울철강	평양-원산 평양-개성고속도로, 경의/평양/평해선 철도, 남포항
해주 공업지구	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시멘트 산업 기지 해주국제무역항 	시멘트, 제련 비료, 농기계	해주제련, 해주비료, 해주시멘트	부포광산	장연-온천 철도, 해주항
신의주 공업지구	신의주 구성 용암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압록강하구공업지구 전력 풍부 	조선, 중기계, 디젤 엔진, 방직, 산물 가공, 화학 섬유	신의주화학섬유, 신의주제지, 용암조선, 북중기계	신도갈대	용암포항
청진 공업지구	청진 나진 선봉 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북북부공업지구 일제시대 중공업 병참 기지 철광석 풍부 	금속 제철, 기계 요업, 석유화학	청진제철, 청진철도, 승리화학, 경성도자기, 아오지화학, 나진조선, 6·5전기종합공장	무산 철강 아오지 유연탄, 부령·회령 석회석	무산·함북선 고성-온성간선도로, 청진항, 나진항
김책 공업지구	김책 단천 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책제철 관련 중공업 개마고원 임산 자원 풍부 	제철·제련, 마그네슘, 펄프, 수산물 가공	김책제철, 길주펄프, 단천마그네사이트·영간화학	개마고원 임산 자원, 함북마그네사이트	원라본선, 예산·백무, 무산선, 김책·단천항
함흥 공업지구	함흥 흥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화학공업지구 석회석 및 무연탄 풍부 전력 풍부 	화학, 비료, 제련, 전기 기구, 농기계, 수산물 가공	흥남비료, 흥남제련, 용성기계, 함흥전기	고원탄전, 만덕·운포석회석	원라본선, 장지선, 동해간선도로, 흥남항
원산 공업지구	원산 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북부공업지구 전력 풍부 	기계, 요업, 수산물 가공, 소비재	문평제련, 원산조선, 6·4차량	고원탄전, 천내리석회석	평양-원산 고속도로, 원산항
청천강 공업지구	순천 개천 안주 덕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천강 유역 내륙 공업 서부 정유 공급 	석유화학, 제련 화학, 섬유, 자동차	봉화화학, 안주종합탄전	안주유연탄 중국대경유전	경의선, 도로망 발달, 韓中송유관
강계 공업지구	강계 만포 진천 회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내륙공업지대 군수 산업, 정밀 공업 위주 	군수 산업(무기류), 방직, 타이어, 통신 장비	강계트랙터, 강계방직, 회천공작기계, 천리마 타이어	임산 자원	만포선, 강계선

자료: 국토개발연구원(1996), 「통일에 대비한 종합도로망 구축 방안(Ⅱ)단계」.

이에 따라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실태를 보면, 대부분 남한의 1/5~1/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전화 회선은 남한의 1/20, 전력 발전량은 남한의 1/8, 도로 포장률은 남한의 1/10에 불과하다. 북한의 전체 주요 항만의 하역 능력을 합하여도 부산항의(5,400만 톤/년) 또는 인천항(3,900만 톤/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지역간의 이동 및 정보 흐름 제한으로 민수용 수송 및 통신 수요 자체가 낮으며, 대외 경제 관계를 제한한 결과 국제적 인적·물적 교류와 관련된 항공·해운 산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간접시설의 부족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북한의 고유한 정치·경제체제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적 생산을 중요시함으로써 기반 시설의 경우 자본 회임 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투자 우선 순위 배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경제의 당면 과제 가운데 사회간접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투자 재원이 부족한 북한의 실정상 직접 개선하기에는 상당한 애로 사항이 예상되고,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될 경우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비교

구분		단위	남한	북한	남한/북한
도로	총연장	km	73,833	23,219	3.18
	고속도로 연장	km	1,650	524	3.15
	포장률	%	77.8	8.1	9.43
철도	총연장	km	6,559	5,112	1.28
	전철화 구간	km	557	3,850	0.14
	전철화율	%	8.5	75.3	0.11
항만 하역 능력		만 톤	27,620	3,501	7.89
운송 화물 총계		만 톤	55,560	22,890	2.43
전력	발전 시설 용량	천 kW	28,750	7,237	3.97
	총발전량	억 kWh	1,650	231	7.14
	일인당 발전량	kWh/인	3,712	1,006	3.69
전화	총회선수	만 회선	1,457	82	17.77
	백인당 회선수	회선	33.68	3.57	9.44
주택 보급률		%	81.7	68.0	1.20

자료: 한국건설업체인협회(1996), 「북한 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p. 90에서 재인용.

주: 포장률은 1992년, 전화는 1991년 기준.

〈표 4〉 북한의 주요 항만 현황

항구	하역 능력 (만 톤)	접안 능력 (만 톤)	수심 (m)	부두 연장 (m)	배후 산업	교통 연계	주요 취급 화물	비고
청진	800 (300)	2	9.7	2,138	청진·김책 공업기지	• 북부순환철도망 • 나진~셋별순환 도로망	철강석, 곡물, 강재	• 만주의 환동해 거점항 • 동항: 수출입 전용 부두 • 서항: 김책제철소 전용
홍남	450 (320)	1	6.7 ~ 7.9	1,850	홍남공단 화학공단	• 평라선 • 동서양안의 연계 선상 위치	비료, 수산물, 섬유	• 10 톤 캔트릭크레인 보유 • 1960년 무역항 개항
나진	300 (110)	1.5	10	2,515	광산자원 청진공단	청진항 참고	공산품, 소금, 잡화	• 1974년 무역항 개항(구소 련의 對동남아 창구) • 한반도 최북단의 부동항
원산	170 (40)	1	6.7 ~ 7.9	2,520	원산공단	• 평라선 • 평양~원산 고성 • 온성도로망	기계, 석탄 시멘트, 수산물	• 1976년 무역항 개항 • 군항으로 이용중 • 만경봉호 전용 부두
남포	800 (300)	2	10	1,890	평양공단 남포공단	• 평남선 • 대동강주운 • 남포~평양고속 도로	기계, 금속, 석탄, 곡물, 시멘트	• 평양의 관문 • 전기 철도로 연결 • 동항은 석탄 부두
해주	240 (100)	1	7	1,350	시멘트 공장	• 해주~사리원 철 도망 • 재령·연안·벽 성도로망	시멘트, 곡물	• 1974년 무역항 개항 • 공장과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시멘트 전용항
송림	160 (130)	1	10	700	금속공단	• 송림~황주철도 및 도로망	철광석, 석탄, 강철	• 1975년 무역항 개항 • 송림제철소 전용 부두 • 광석 전문 처리항
선봉	200	20	15	-	정유공장 석유화학 발전소	청진항 참고	석유	• 북한 최대의 원유 전용항

자료: 한국산업은행(1995), 「북한의 산업」.

주: 남한의 경우 하역 능력(1995)을 보면, 인천 3,908만 톤, 부산 5,484만 톤, 목포 593만 톤, 군산 352만 톤 등임.

산업 입지의 문제점

○ 공업 발전 과정과 입지 패턴의 비효율성

북한은 공업 발전 과정 및 입지 패턴에 있어서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남한은 경공업에서 출발하여 중화학 공업으로 이행하는 선진국의 공업 발전 수순을 밟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공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공업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중공업이 국방 및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된다는 관점에서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중공업 발전을 집중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자력갱생 원칙과 통제경제체제를 고수함으로써 자본의 부족과 기술 수준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공업 입지의 경우 원료와 전력 등 자원의 확보가 용이한 동북 임해 지역과 평양·남포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왔으며, 집적 이익의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 상의 이유로 휴전선에서 원거리인 강계, 희천 등지에 군수 공업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을 신산업지대로 육성하였으며, 사리원 이남에는 주요 공업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즉, 전략적 측면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중시하지 않은 결과, 북한의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 공업 생산 규모의 절대적 부족

남북한 공업 발전 과정의 차이는 공업 생산과 경제력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초래하였다. 한국은행의 GNP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GNP(1994)는 경상 가격으로 212억 달러로서 동년 남한(3,769억 달러)의 1/18 수준에 불과하며, 1인당 GNP도 924 달러로 남한(8,479 달러)의 10.9%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제조업 생산액을 추정하면, 54.7억 달러(1992)로서 동년 남한의 제조업 생산액(약 804.0억 달러)의 6.8% 수준이다. 이는 남한의 부산시의 공업 생산액 수준으로 북한의 공업 규모가 남한에 비해 매우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 북한 공업 구조의 취약

북한의 공업 구조를 보면,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이 31 : 69로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높다. 이는 일면 남한의 34 : 66과 비슷한 실정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공업은 대부분 전근대적 생산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없다. 더욱이 중공업은 군수 산업 위주로 발전되어 있어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을 고려한다면, 중공업과 경공업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 남북한 경제력 및 국토 개발 비교(1994)

구분	남한(A)	북한(B)	A/B
인구(만 명)	4,445	2,295	1.9
경상GNP(억 달러)	3,769	212	17.8
1인당 GNP(달러)	8,479	924	9.2
무역 총액(억 달러)	1,984	21	94.0
제조업 생산액(억 달러)	804.0	54.7	14.7
발전량(억 kWh)	1,650	231	7.1
철도 연장(km)	6,559	5,112	1.3
도로 총연장(km)	73,833	23,219	3.2
항만 능력(만 톤)	27,620	3,501	7.9

자료: 제3차국토계획 수정계획(안)(1995).

○ 기반 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낙후

도로, 철도, 공항,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은 국가 경제 발전의 요인이다. 북한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은 투자의 부족, 시설의 유지 관리 미비, 수송 부담물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애로 요인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수송을 비롯한 하부 구조의 개선없이는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공업용 토지가 조성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도로, 항만, 철도, 전력 등 기반 시설이 종합적으로 연계·개발되어야 효율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반 시설의 부족은 산업

입지 개발을 통한 경제 회복에 구조적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침체가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재원의 자체적 조달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조성에도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대북 투자 사업 추진 실태

남북 협력 산업 추진 실태를 보면, 정부의 승인 아래 개별 기업 형태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 입지의 경우 대우에 의한 남포공단사업과 한국토지공사에 의한 나진·선봉내 공업단지(유현시범공업단지) 건설 사업이 있다.

대북 투자 사업 승인 현황

1998년 2월 현재 협력 사업 승인 업체는 7

<표 6>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승인 현황

(단위 : 만 달러)

기업	사업 내용	투자 규모	북측 회사	투자 지역	승인일
대우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512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1995. 5.17
태창	금강산산물개발	580	룡라888무역총회사	고성 온정리	1997. 5.22
한국통신	경수로 건설을 위한 통신 지원 사업	"	체신부	함남 신포 금호지구	1997. 8.1
한국전력	경수로 건설 지원 사업	4,500(PWC)	원자력총국	"	1997. 8.16
한국외환은행	경수로 사업 부지내 은행 점포 개설	-	-	"	1997. 11.6
녹십자	혈전중치료제(유로키나제) 제조 사업	311	광명성총회사	평양	1997. 11.14
(주)야자 커뮤니케이션	북한 풍경 인쇄 · TV 광고 및 기업 홍보용 영상물 제작	편당 25			1998. 2.18

자료: 통일부(1998. 2),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동향」.

주: 대우는 1996년 1월 26일 민족사업총회사 설립, 1996년 6월부터 투자 자금 송금.

개 업체, 협력 사업자 승인 업체는 23 개 등 총 30 개 업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북한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주)대우의 512 만 달러이며, 그 후 1997년 5월 22일 (주)태창의 협력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이어서 녹십자, (주)야자커뮤니케이션이 승인된 바 있다.

주요 대북 투자 사업 진행 상황

○ 남포전용공단

북한 김달현 부총리 방문(1992. 1)시 경제 협력 시범 사업으로 개시된 사업으로서, 남포에 경공업기지를 건설하고 대우측에서 생산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여 합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입지 여건은 양호하나 발전소 건설의 병행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 계획을 보면, 남포시 와우도 구역 신흥리 일대에 1차로 30만 평 규모로 개발하되, 단계적으로 200만 평 규모의 남한전용공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요 유치 업종은 섬유, 의복, 완구, 신발 등 경공업 제품과 전기, 전자 등 조립 가공 공업 등이다.

○ 나진 · 선봉내 공업단지: 유현공업단지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총규모 200만 평을 조성하되 1단계로 40만 평 조성 사업을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주요 유치 업종은 석유 · 화학, 목재 가공, 조선, 섬유 의복, 음식료품 등이다. 고합물산, 국제상사, 동양시멘트, 삼성

전자, 신일피혁, 대상불류, 삼천리자전거, 태역수산, 한국토지공사 등이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

○ 신포 지역 경수로 사업

북미제네바합의(1994. 10)에 의해 핵개

〈표 7〉 유현시범공업단지 추진 현황: 나진·선봉

구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북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내 유현동 • 규모: 총면적 200만 평 규모의 공업단지(1단계 40만 평) • 투자 유형: 단독 투자(100%) • 사업 주체: 한국토지공사
사업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8: 나진·선봉지대 현지 방문 조사 - 1997. 4: 유현공단개발사업 의향서 체결(북경) - 1997. 10: 협력 사업자 승인(통일원) - 1998. 4: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중 • 향후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협의서 체결을 거쳐 통일원 협력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 예정
나진·선봉자유 무역지대 투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북도 나진시 및 선봉군 일원 746 km² 지역 1991년 12월부터 경제특구 지정 •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 - 기반 시설 개선 -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노력 -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 • 관세 혜택 •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소득률은 결산 이윤의 14% -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 생산 투자 기업은 이윤 발생후 3년간 면제 - 총투자액이 6,000만 원 이상의 하부 구조 건설 부문은 이윤 발생후 4년간 면제 • 출입국 관리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No VISA)제도 실시 - 국외 송금 보장 - 외환 거래의 부분적 허용 •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경제무역지대: 160 원 수준(미화 75 달러) •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 구조가 갖추어진 구역의 1급지는 북한 화폐 43 원/m² · 50년 - 입지 조건이 1급지보다 열악한 2급지는 북한 화폐 21.5 원/m² · 50년 - 개발 조건이 불리한 3급지는 북한 화폐 10.7 원/m² · 50년

주: 나진·선봉내 공업단지로서 공식적으로는 '유현시범공단'임.

발 포기를 전제로 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으로서, 함경남도 신포시(금호지구) 270만평에 추진 중이며 부지 공사(1997. 8~1998. 8)가 진행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1,000 MW급 한국형 경수로 원전 2 기 및 부대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

통일에 따른 산업 입지의 영향과 과제

통일이 산업 입지에 주는 영향

통일후 북한의 공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 규모가 소규모이므로 공업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쉽게 완화할 수 있으며, 소규모의 투자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격차는 구 동서독간의 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현 남한의 경제력으로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독일의 경험을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이 산업 입지에 주는 영향은 산업 입지의 잠재력 확대, 산업 구조의 조정과 기존 산업 입지 패턴의 변화, 지역별 산업 입지 여건의 변화, 대륙 진출로 국경 주변의 산업 입지 증대, 내수 지향형 산업 입지 비중의 상대적 증대 등이 예상된다.

첫째, 산업 입지의 잠재력 확대이다. 통일

은 산업 입지 측면에서 잠재력 확대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 지역은 산업 입지의 '新開發地(frontier)'로서 가능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입지 잠재력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산업 입지는 현재의 일부 지역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며 산업 입지 형태도 보다 다원화될 것이다.

둘째, 산업 구조의 조정과 기존 산업 입지 패턴의 변화이다. 현재의 남북한의 산업 구조는 국토 분단과 남북한간의 경제체제간 교류의 단절이라는 제약 하에 형성된 것이다. 통일은 이와 같은 제약의 극복 과정에서 남북한의 산업간 보완과 산업 구조의 조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남북한 산업간의 보완과 구조 조정은 기존의 산업 입지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의 기존 산업 지역의 쇠퇴와 발전이 예상된다.

셋째, 지역별 산업 입지 여건의 변화 초래이다. 통일 국토는 주변국과의 수송 유형이나 수송망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의 제조업 입지 패턴은 상품의 수송과 원료의 구입을 위한 수송체계와 교통망에 의존하고 있으나, 통일에 따른 수송체계의 변화는 산업 입지 여건의 지역별 비교 우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육로 운송이 가능하게 되어 철광, 목재 및 석탄 등 원료 구입이나 전자, 자동차 및 소비 제품의 판매를 위해 내륙 지역에 대

한 입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임해 또는 항만 위주의 산업 입지 수요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넷째, 대륙 진출로 주변 지역의 산업 입지 증대이다. 국토의 통일은 전통적인 대륙 진출의 관문으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 나아가서는 유럽 대륙과의 연결 지점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한반도는 대륙 진출에 있어 동북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륙 진출로인 중국 및 러시아 국경 지역 인근으로 산업 입지가 상대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다섯째, 내수 지향형 산업 입지 비중의 상대적 증대이다. 통일에 따라 북한 주민의 소비재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산업의 내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수 시장을 위한 제조업 입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시장 지향적 산업 입지도 아울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에 대비한 산업 입지의 과제

통일에 대비한 산업 입지 부문의 과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 전후의 단계별·과정별 산업 입지 전략의 필요이다. 통일은 남북 관계의 개선에 따라 '제한적 교류→개방적 교류→전면적 교류' 등 단계별로 진행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각 단계에 적합한 또는 각 단계를 포괄한 산업 입지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통일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와 잠재력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 등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통일은 교류 확대의 진행과 함께 급격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바, 여러 가지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전략의 수립이다. 산업 입지의 전망이나 계획의 수립에 앞서 국토 통일이 가져올 산업 활동 전반의 변화, 특히 남북한 산업 구조 및 생산과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산업 입지의 잠재력 분석과 효율적 활용 방안의 검토이다. 남한과 북한의 산업 입지에 대한 잠재력 조사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정주체계와 교통·통신망, 주변 여건뿐만 아니라 통일 국토의 정주체계와 교통망에 대한 미래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의 실현이 예상되는 2000년대의 기술과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전망한 다음, 이같은 변화가 한반도의 산업 입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별 입지 여건 변화의 고려이다. 통일 국토에서의 산업 입지 협력 구상을 위해서는 통일이 지역별 산업 입지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망하여야 한다.

이에는 공업 용지의 규모, 위치적 특성, 물적·사회적·경제적 환경 조건 등의 입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산업 입지의 '신개발지'로서 북한 산업 입지의 개발 전략 수립이다. 통일후 북한은 산업화 측면에서 볼 때 '신개발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이 한반도의 산업 발전이란 틀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기존 산업 입지의 활용 가능성 및 재개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 구조 측면에서 남한의 쇠퇴화 단계에 있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 또는 자원 지향적 중공업 기능을 담당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 입지 기능을 담당하게 할 것인지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통일에 따른 산업 입지 개발의 추진 방안

기본 방향의 설정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산업 입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 구조의 조정과 입지 여건의 개선 도모이다. 이에는 정보화, 기술 발전 등 범지구적 산업 구조 변화 가운데서 동북아경제권의 변화 검토가 포함된다. 즉, 세계화시대 동북아경제

권 형성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 구조의 조정과 입지의 개편을 도모한다.

둘째, 한반도 균형 개발의 도모이다. 북한의 산업 입지 개발에 있어 한반도의 새로운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도록 공간 구조, 도시 체계, 기반 시설 등을 감안하여 산업 입지 개발이 한반도 균형 발전을 가져오도록 한다.

셋째, 통일 국토의 정주체계와 교통망 반영이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계획을 고려함과 아울러 도시체계 등 공간 구조도 고려한다.

넷째, 통일의 과정별 및 단계별 산업 입지 전략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반영한다. 특히, 남북 관계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제한적 교류→개방적 교류→전면적 교류'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의 각 과정별 및 단계별로 적절한 산업 입지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부표 3〉 참조).

다섯째, 남북한 기존 산업 입지 잠재력의 최대한 활용이다. 통일이 가져올 산업 활동 전반의 변화, 특히 남북한 산업 구조와 생산 및 시장에 대한 과급 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되, 남북한의 기존 산업 입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를 통해 통일 비용의 감소 및 한반도의 거시경제적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

여섯째, 계획 입지 중심의 산업 입지 개발

이다. 통일후 북한의 산업 입지 개발은 철저한 계획 입지 중심으로 추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화 아울러 난개발 방지·환경 오염 방지를 도모토록 한다.

산업 입지 개발 전략의 선정

통일 한국의 산업 입지 개발 전략은 단계별 개발 전략과 남북한별 산업 입지 전략으로 구분된다.

○ 단계별 개발 전략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산업 구조의 개편은 전면적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산업 입지 전략도 통일 과정별로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① 제1단계: 제한적 교류

북한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한의 사양 산업을 포함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이전한다. 특히, 북한이 개방 지역으로 설정한 나진·선봉 등 자유경제지역에 우리의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입지시킴으로써,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의 협력을 도모하여 북한의 개방 확대 유도과 남한의 산업 구조 조정을 도모한다. 특히, 약 20조 원에 달하는 남한 유휴 설비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즉, 지금까지 스리랑카, 베트남 등 동남아를 주요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양 산업 중심의 해외 직접 투자를 북한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부표 1〉, 〈부표 2〉 참조).

경제특구에 대한 산업 입지는 투자의 안정성과 다국적 기업들간 기술·정보 교류의 활성화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휴전선 부근에 '남북평화공단'을 건설하여 남한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인력 활용을 기본으로 한 공동 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한다.

② 제2단계: 개방적 교류

노동력 확보, 북한 시장 접근, 기반 시설 활용,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이 가능하여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큰 북한의 정치·경제의 중심 지역에 산업 입지를 추진하여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기존 산업이 발달한 지역 가운데 경제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남포 외에 신의주 등에 산업 단지를 건설하고 소비재 산업을 입지시킴으로써, 북한의 부족한 생필품 문제를 해소하고 북한 시장 및 중국 시장의 확보에도 기여토록 한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휴전선 부근에 건설한 '남북평화공단'에 자본·기술·인력의 투입을 확대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신산업지대로 육성토록 한다.

③ 제3단계 : 전면적 교류

전면적 교류 단계는 통일 후를 의미한다. 통일 후에는 무엇보다 북한 경제의 재건과 통일 한국의 산업 구조 조정을 도모하되, 자본 이동 확대를 통해 과도한 인구 이동에 따른 불경제의 감소를 추진토록 한다. 아울러 통일 국토의 차원에서 미래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 입지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의 산업 개발축 형성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경제권의 중심 역할을 하는 데 기여토록 한다.

○ 남북한별 산업 입지 전략

통일 과정 및 전후에 있어 남북한별 산업 입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에는 노

동 집약적이며 자원 가공형 공업, 풍부한 수력 자원을 활용한 전력 산업, 제철 산업 및 석유·가스 정제 산업 등 자원 가공 산업, 대륙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경공업 및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며, 기존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토록 하며, 기존의 두만강유역 경제특구를 포함한 3~4 개 특구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그리고 남한에는 기존의 중화학 공업 패턴을 유지하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며, 서해안 지역에 對중국 연안 지역을 겨냥한 산업을 배치하며, 기존 동남 해안 지역의 산업 정비를 통해 국제화에 대비토록 하고, 동해안 북부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환동해경제권에서의 역할을 도모한다.

〈표 8〉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단계별 산업 입지 전략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남북 관계	• 제한적 교류	• 개방적 교류	• 전면적 교류
개발 대상 지역	• 휴전선 인근 지역 • 북한 일부 지역	• 북한의 주요 지역 및 기존 산업 지역 • 휴전선 인근 지역	• 한반도 전체
산업 입지 전략	•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사양 산업을 포함한 노동 집약적 산업의 이전 • 휴전선 부근에 남북평화공단 건설의 제한적 추진 • 제3국과의 합작 추진 포함	• 노동력 확보, 북한 시장과 기반 시설 활용이 가능한 북한의 정치경제 중심 지역 투자 • 남포공단 외에 신의주 등에 한국 전용 공단 건설 추진 • 남북평화공단의 활성화 • 북한의 기존 산업 지역을 중심으로 경공업 투자를 활성화	• 자본 이동 확대를 통해 파다한 인구 이동에 따른 통일의 불경제 감소 추진 • 북한 경제의 재건과 통일 한국의 산업 구조 조정 추진 •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의 산업 개발축 형성을 통해 동북아경제권 중심 역할 추진

○ 산업 개발축의 형성

통일 한국에 있어 수도권, 서해안산업축, 동해안산업축, 남해안산업축, 한·만국경축 등 5 개의 산업 개발축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산업 입지 개발을 도모하도록 한다.

첫째, 수도권은 첨단 기술 산업에 있어 입지 여건상 절대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첨단산업기지 조성을 위한 기반 정비 및 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둘째, 서해안산업축(북포·군장·아산·서울·개성·평양·신의주)은 환황해경제권을 목표로 정보통신·수송·첨단 기술·중추 기능의 확충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부로 개발한다. 셋째, 동해안산업축(부산·포항·동해·속초·원산·함흥·청진)은 환동해경제권을 목표로 기초 소재형 산업과 조선 및 자연 자원 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넷째, 남해안산업축(부산·마산·진주·광양·목포)은 중화학 공업 및 물동량 처리의 개발축으로 서해안산업축과 동해안산업축을 연결하여 U자형해안산업축을 구축토록 한다. 다섯째, 한반도 북부인 한·만국경축(신의주·청진)은 발해만 연안 지역과 두만강 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축으로 경공업 및 북방 자원 가공 산업을 배치하여 대륙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 육성한다.

○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및 개발 구상

산업 입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교통체계의 이질성 극복이다. 도로 수송 중심의 남한교통체계와 산업 철도 위주의 북한교통체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이를 통합한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이 교통 정비의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 철도가 전체 물동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로와 항만의 분담률은 각각 7%와 3%에 불과해 남한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현 교통체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되 교통 수단간의 역할을 분담시켜 상호 연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둘째,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이다. 남북간의 교류 장벽이 없어지면 한반도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유러시아 지역과의 교류에 있어 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이다. 특히, 수출 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와 육로를 통한 직접 교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 연결되는 철도망의 구축은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을 통한 화물 수송은 해상 운송보다 수송 거리가 짧아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종래의 해운 중심의 운송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도로·철도·해운간의 복합적운송체계의 구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계별 확충 방안의 추진이다.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교통망체계에 맞추어 북한의 교통망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남북한의 연계를 위한 우선 복원 대상 구간으로서 도로는 문산·판문점·개성을 잇는 국도1호선, 철원·평강을 연결하는 국도3호선, 그리고 동해안의 간성과 장전을 연결하는 국도7호선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통 수요에 따라 국도5, 31, 43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철도의 경우는 개성·판문점·문산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철원·평강·복계를 연결하는 경원선을 우선 복구하도록 한다. 화물 수요에 따라 철도망을 건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서해안 및 동해안의 주요 노선은 중국 및 러시아의 철도망과 연결하도록 한다. 그러나 북한의 도로나 철도는 시설 수준이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아 단순한 교통망의 연결만으로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북한내 교통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병행토록 한다.

넷째, 항만 및 공항 시설의 정비 확충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자급자족적경제체제를 지향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요 무역 상대국인 구소련 및 중국과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항만의 발달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공항 역시 평양 근교의 순안비행장과 나진·선봉지역에 건립 예정으로 있는 새로운 공항을 제외하면 국제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항이 거의 없어 북한의 교통 수단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기지 관련 시설 및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환황해지역간 교류 및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 거점 공항의 시설 정비도 필요하다.

맺음말

통일후 북한의 공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첫째는 북한의 경제 규모가 소규모이므로 통일후 공업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쉽게 완화할 수 있으며, 소규모의 투자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와 둘째는 남북한의 격차는 구 동서독간의 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현 남한의 경제력으로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경험을 볼 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이 산업 입지에 주는 영향은 산업 입지의 잠재력 확대, 산업 구조의 조정과 기존 산업 입지 패턴의 변화, 지역별 산업 입지 여건의 변화, 대륙 진출로 주변 지역의 산업 입지 증대, 내수 지향형 산업 입지 비중의 상대적 증대 등이다. 이를 감안할 때, 통일에 대비한 산업 입지의 과제로는 통일 전후의 단계

별·과정별 산업 입지 전략의 필요, 남북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전략의 수립, 남북한 사업 입지의 잠재력 분석과 효율적 활용 방안의 검토, 지역별 입지 여건 변화의 고려, 향후 산업 입지의 '신개발지'로서 북한 산업 입지 개발 전략 수립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입지의 변화와 과제를 전제로 한 통일에 대비한 산업 입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 방향으로서는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 구조의 조정과 입지 여건 개선의 도모, 통일의 과정별·단계별 산업 입지 전략의 추진, 남북한 기존 산업 입지 잠재력의 최대한 활용, 통일 국토의 정주체계와 교통망의 반영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 아래 단계별 개발 전략과 남북한별 산업 입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개발 전략을 선정할 수 있다.

단계별 개발 전략의 경우, 제한적 교류·개방적 교류·전면적 교류로 구분하여 개발 전략을 수립하되, 실제적으로 통일은 제한적 또는 개방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면적 교류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하여 모든 경우에 대비하도록 한다. 특히, 북한 산업 입지의 경우 전면적 교류 등에 따라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바, 철저한 계획 입지 중심으로 운영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 입지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명확한 기준 아래 설정하여 제시하도

록 한다. 이와 함께 기반 시설의 연계 개발이 없는 산업 입지 개발은 의미가 없는 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한편, 통일 한국의 산업 입지 측면에서 북한내 산업 입지 개발 방안을 구상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산업 개발축의 형성을 도모한다. 산업 개발축은 수도권·서해안산업축(목포·신의주), 동해안산업축(부산·포항·함흥·청진), 남해안산업축(부산·광양·목포), 한·만국경축(신의주·청진)의 5개로 형성함을 도모한다. 

참고 문헌

- 고일동(1997. 11), “북한의 공업단지 분포 및 사회간접자본 실태에 관한 고찰”, 「통일과 토지 정책」, 한국토지공사.
- 국토개발연구원(1992), 「북한의 국토개발편람」.
- (1997), 「통일에 대비한 국토 개발 관리 기본 구상 연구」.
- 김영봉(1997), 「접경 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김영봉·박인성(1994), 「동북아경제권에 대응한 국토 개발의 과제」, 국토개발연구원.
- 김태환(1998. 1), “산업 입지 부문의 단기 대책과 장기 구상”, 「국토」, 국토개발

연구원.
 김홍배·임재영(1997. 6), "통일후 생산 요소의 이동과 지역 경제의 변화", 「국토계획」, 제32권 제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박영철·김영봉(1996. 12~1997. 1), "한국 접경 지역의 관리 방안(상)(하)", 「국토정보」, 국토개발연구원.
 박영철(1996. 5), "해외 공단 개발의 합리적 추진 방안", 「국토정보」, 국토개발연구원.
 ——(1996. 1), "통일에 대비한 산업 입지 정책 방안", 「국토 개발 전략의 새로운 방향」, 국토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1998. 4.16), "공장 유휴 설비 대북 이전 방안", 정책 자문 자료.
 산업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한국산업개발연구원(1995. 11), 「신공업 배치 기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송태수(1996), "남북한 산업 입지와 종합 개발 구상", 「한국지역개발학회」, 제2호, pp. 43~59.
 이상준(1997. 12), 「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 이동의 안정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7), 「통일과 국토 개발의 과제: 독일 통일의 경우」, 국토개발연구원.
 이영성(1998. 6.27), "통일후 북한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 및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학회 논문.
 정희성·강광규·강철구(1996. 12), 「북한의 환경 문제와 통일 한국의 환경 정책 방향」, 한국 환경기술개발원.
 통일경제연구협회(1998), "대북 정경 분리 정책: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인가?", 제4차통일경제세미나.

〈부표 1〉 섬유 산업의 업종별 유휴 설비 현황 (1997)

구분		주요 시설	보유 시설	유휴 시설(%)
섬유	방직사	정방기	400만 추	40만 추(10)
	직물	직기	12만 대	1만 대(8)
	편직물	편직기	6만 대	4,000 대(7)
	염색	텐터기	750만 대	40만 대(5)
	의류	봉재기	25만 대	2.5만 대(10)
신발 산업		조립 라인	320 라인	30 라인(10)
원구 산업		봉재기	8,000 대	2,000 대(8)
피혁	가방	봉재기	8,000 대	
	혁제 의류	봉재기	1만 대	

자료: 산업연구원(1998).

〈부표 2〉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유망 업종

구분	업종
인건비 비중이 큰 산업	방직(면방 및 일부 화섬), 직물(면직물, 편직물 등), 봉제 의류, 염색 가공, 가죽, 신발, 가구, 금속 주조, 조립 금속, 유리, 비금속광물, 제지, 인쇄, 농기계, 광산기계, 공작기계 등의 일부 기계 및 부품 등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은 산업	음식료품, 목재, 시멘트, 석회, 일부 화학 섬유, 가정용 전기 제품 등
경쟁력 저하 산업	중저가 혁제, 운동화 및 천신발, 흑백 TV, 컬러 TV 조립, 라디오, 선풍기, 단순 조립 전기·전자 부품, 주물, 강관, 선재, 철선, 옷, 철망, 플라스틱, 합성 고무 가공 제품, 범용 기계 부품, 선박 수리, 종이, 펄프

자료: 산업연구원(1998).

〈부표 3〉 통일 시나리오의 유형과 특성

통일 유형	주요 특성	비고
합의형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리더십이 강성이고 한미 양국이 대북 지원 정책을 취할 때 가능 경제 분야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 일당 독재의 정치체제 견지 외부 정보 유입으로 독재 정치에 대한 저항감이 확산되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진압 남북공존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북한 지도부의 연성화 남북한 양쪽의 중산층 및 지식인 중심의 통일 운동 발생 남북 지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의해 평화 통일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성이 낮음 20년 소요
유도형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리더십이 연성이고 한미가 지원 정책을 쓸 때 가능 한미의 지원으로 개방 정책에 성공하여 체제 및 사회 변화 발생 한미에 대한 적대감 해소 반독재 봉기 발생: 약한 북한의 리더십으로 진압 실패 구테타 및 인민의 대량 탈출 사태 발생 천남 정권의 등장으로 북한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통일 이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가능성이 높음 5~15년 소요
지멸형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리더십이 연성화하여 비효율적이고 실정거듬 한미는 강경 보수화하여 남북한 조기 통일 의지 강렬 경제난 등 북한의 위기 요인들 심화 구테타가 반발하고 난민의 대량 탈출과 내부 혼란 지속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통일 개입 포기 한국의 국제적 지지 하에 북한을 한국에 편입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성이 높음 3~10년 소요
충돌형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리더십이 강성이고 한미가 봉쇄 정책을 쓸 때 가능 북한의 위기 상황 지속: 외부 지원없이 희생 불능 북한 리더십의 호전성 강화 중국의 북한 지원 요청 불응 북한 지도부의 선동으로 전쟁 도발 한미연합군의 강력 대응으로 북한의 전쟁 패배 한국군 주도 하에 치안 질서 유지 → 통합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가능성이 낮음 3~5년 소요

자료: 정희성 외(1996. 12), 「북한의 환경 문제와 통일 한국의 환경 정책 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